

“한글배워 신행 열심히 할래요”



4월 18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린 한글교실에서 불자 몽골 노동자들이 '말하기' 수업을 받고있다.

조계사, 몽골 노동자 '한글교실' 열어 법회 통해 동포에 느끼고 한국문화 이해

“없다니까요. 몽골에는 말이 없어요.”
‘말(馬)’이란 단어를 알아듣지 못한 파트베히 씨(37). 말이 없다고 끝까지 우긴다. ‘정말 없나’는 연이은 질문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하다. ‘없다’는 것이다. 보다 못한 빠이갈 씨(35). 몽골어로 귀엽게준다. 잠시 후, 파트베히 씨가 머리를 긁적거리다. “사실 말이 무지 많은데...”

4월 18일 서울 조계사 교육관, 주한 몽골인 노동자들을 위해 열린 ‘즐거운 한글교실’ 강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어눌한 한글 발음, 서툰고 엉뚱하게 말해도 ‘웃음 한 방’이던 O.K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조계사(주지 지홍)가 마련한 한글교실. 오늘은 몽골인 노동자 10명이 모였다. 강의는 조계종 권인식 국제포교사가 맡았고, 학생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부천, 수원에서 일하는 몽골인 불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조계사 오는 길은 이래요. 설렘 그 자체예요. 동포들을 만나서 기쁘고, 한글도 배워 생활하는데 엄청 도움을 받아요. 부처님과 동포들을 볼 때마다 서글픔은 기쁨이 돼요.” 한국생활 3년차, 앳따양(37) 씨는 조계사가 마치 ‘친정집’ 같다고 말한다. 서울 성수동 주몽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조계사 한글교실 때문이란단다.

그리고 이어진 정기법회. 몽골인 짬바 스님과 몽크어쉴 스님이 몽골전통 불교의식에 따라 집전을 한다. ‘문수보살찬양계’를 외우고, 몽골어 법문을 듣는다. 공간은 한국이지만, 시간은 고스란히 몽골을 옮겨다놓았다.

30분 넘게 계속된 스님들의 독경. 불자 몽골 노동자들이 두 손을 모아 턱밑에 권다. 두 눈도 짙은 감고 소원을 빈다. 무슨 기도를 올렸을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돈을 벌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까지 말이에요. 소원 한 가지도 더 올렸죠. 우리 아들이 밝고 아름답게 클 수 있도록...”

한국에 온 지 5년 된 영혜(36) 씨. 열두 살 된 아들 하스일 닌의 걱정엔 눈물을 흘렸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국말이 서투러도 즐거운 한글공부. 몽골 불자노동자들이 환하게 웃고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도공스님 법주사 주지 취임 “계율도량 면모 지키겠다” 밝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앞줄 맨 왼쪽) 취임법회가 4월22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제 29대 주지 도공 스님 취임법회가 4월 22일 법주사 용화보전 앞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원로 회의의장 종산 스님과 총무원장 법장 스님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공 스님은 취임사에서 “스님

들이 참선수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하면서 계율도량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인터넷 시대에 맞게 사이버 포교에도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공 스님은 청주 불교방송장과 12·13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한영우 기자

생명나눔, 소아암환우에 성금 광주전남본부 7명에 3천만원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은) 4월 20일 전남대 병원 소아암병동에서 지난 11일 대원사에서 열린 ‘빛꽃길 달리기대회’ 수익금 3천만원을 백혈병

어린이 투병 지원금으로 환우들에게 전달했다.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환우와 가족, 병원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본부장 현장 스님은 인사말에서 “소아암 환우들은 치료만 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70%이지만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2000년부터 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펼쳐오 있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평화연대 1주년 문화공연

평화·통일·생명·인권 실현을 위한 불자들의 모인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상인대표 행법·이하 불교연대)가 4월 18일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창립 1주년 기념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난 1년을 자축했다.

이날 불교연대는 ‘한반도에 평

화를, 북한어린이에게 생명을!’이란 슬로건으로 오전 10시부터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과 사진전, 기념 문화공연을 벌였다.

상인대표 행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연대는 짧은 기간이지만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행을 펼치고자 혼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원각사 효나눔 경로잔치



광주 도심속 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가 대웅전 중장불사에 앞서 4월 17일 경내에서 ‘도문스님 초청 법회’와 경로잔치를 벌였다.

이날 법회에서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광주 포교 일번지 원각사가 도심속에 법석을 마련한지 100년만에 중장불사에 거듭나고자 한다”며 “불사에 앞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나눔행사’를 갖고자 하니 즐겁고 정겨운 시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문 스님(대각사 조실)은 법회에서 “자비실천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불자로 물질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는 보시불자가 되 어달라”고 당부했다.

2부 경로잔치에는 한빛국악예술단을 비롯한 연예인이 출연해 사물놀이와 판소리 등 공연을 펼쳤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찰’



흥국사 보현합창단과 주지 대오 스님이 산사음악회 공연 연습에 한창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흥국사(주지 대오)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포교사찰이다. 문화포교사찰이란 말이 생소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주말수련법회와 불교대학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흥국사를 문화포교사찰이라 부르기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제1회 산사 건강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흥국사는 고양시 주민들의 신행공간이자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흥국사는 서기 661년(신라문무왕 원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초기 왕실

의 안병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흥국사 사가 1300여

년 이 지난 지금까지 고승대덕의 수행처와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의 약사여래 기도처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중생에게 다가가려는 숨은 노력 덕분이다.

흥국사가 고즈넉한 산사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 것은 작년. 부처님 가르침에 목마른 불자들을 위해 불교대학을 설립해 기본교육을 시작했다. 또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 불자 양성을 위해 어린이법회 개설하고, 합창단과 역사체험활동 등 모든 연령을 ‘불교문화’ 속에 아우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흥국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신도들이 사찰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끝에 올해는 매주 첫 번

째, 세 번째 주말에 주말수련법회를 시작했다.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산을 오르는 어린이에서부터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까지, 1박 2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천년의 만남, 참나를 찾아서’라는 수련법회 주제처럼, 참가자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새벽 숲길 걷기명상과 참선수행, 선제초 등을 따라하며 지친 심신을 가다듬고 모든 집착과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

요즘 흥국사는 5월 9일 개최하는 ‘산사 건강음악회’ 준비로 바쁘다.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젊은이와 어르신

이 한데 어울리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신도 30여명으로 구성된 보현합창단은 매주 화,금요일 친불가 공연연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심을 닦는 저희의 음성으로 음악회를 찾는 이들의 불성을 깨울 생각이에요.” 보현합창단 윤은순 단장의 각오는 대단하다. 문화포교사찰을 만들고, 키우는 모든 것이 신도들의 묵이러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지 대오 스님은 “앞으로는 템플스테이 등 외국인들을 위한 불교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흥국사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내 앞 부지에 60평 규모의 수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02)381-7970

김은경 기자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구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무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뱀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원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유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할장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 동 용 궁 사
전화: 051) 722-7744, 7755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림